



제09호 / '15.7.20(월)

지부교섭 속보

기본급 159,900원 인상
유급 대체휴무 쟁취
실질적 위험성평가 시행

발행처: 선전부 | 발행인: 조민제 | 주소: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| 전화: 043-236-5077 | http://dc.kmwu.kr

임금교섭 안할건가!

사측 2개사만 임금안 제시

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

16일(목) 한라비스테온공조에서 11차 지부교섭이 열렸다. 각 사별로 순환하며 진행하던 교섭장소를 한라비스테온공조로 변경한 것은 지부교섭을 마무리 짓자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. 지부교섭에서 임금안이 나오면 각 지회별로 추가적인 실무교섭을 열 수도 있다. 그렇게 되면 6개 지회가 별도로 논의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섭장소를 한라비스테온공조로 정한 것이다. 그런데 이 날 사측 제시안은 형편없었다. 심지어 임금안은 6개사 중 2개사만이 제출했다.

4차 제시안

1. 2015년 임금인상

- 대한이연(주) : 기본급 월 45,000원 (2015.4.1부 소급적용)
- 한국JCC(주) : 기본급 월 25,000원 (2015.3.1부 소급적용)
- 코스모링크, 한라비스테온공조, 한국로버트보쉬, KDK : 추후제시

2. 유급휴일

- ① 설날연휴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, 추석연휴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가 일요일과 중복시 익일을 휴무로 있다. 단, 연간 근로일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대체 근로일을 정한다.

- ② 상기 ①항의 내용보다 각 사별 단협이 상회하는 경우 그 단협에 따른다.

3. 위험성 평가

- ① 회사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매년 노동조합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.
- ② 회사는 위험성평가지 3명 이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(지회)측 위원이 참여하도록 보장한다.
-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 협의로 정한다.

다음 주가 마지노선!

지부는 휴가 전 조속히 타결할 수 있게 성의있는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. 그러나 휴가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임금안을 다뤄보지도 못했다. 중앙교섭도 조금씩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부교섭은 여전히 멀다. 지부는 차기교섭에서는 의견접근할 수 있는 아주 전향적인 제시안을 준비하라고 마지막으로 촉구했다. 7월 마지막주부터 휴가에 돌입하는 사업장들이 있어서 차기교섭은 휴가 전 마지막 교섭이 될 가능성이 크다. 사측이 차기 교섭에서 의미있는 안을 들고오지 않으면 올해 임단투도 여름휴가를 넘기게 된다. 가뜰이나 뜨거운 여름인데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태도로 조합원들이 열받는 일이 생긴다면, 그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.

11차 교섭 속기록

임금 '추후 제시' 너무 성의없다

노 : 지난 중앙교섭에서 제법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다. 두가지 안은 접근을 했다. 다음 중앙교섭에서는 타결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. 물론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해 성의있는 안이 나올 때 가능하겠지만, 지금 분위기면 되지 않겠나 한다. 지부교섭도 오늘 사용자들이 임금안을 제시할지 모르겠는데, 다음주 중앙교섭이 끝나면 지부교섭도 속도를 내서 빠른 시간 안에 원만하게 타결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. 오늘 안을 기대하겠다.

사 : 중앙교섭도 전반적으로 그렇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속도를 내서 현안을 정리하면 좋겠다.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접근과정을 거쳐서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. 저희도 속도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내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. 오늘 내는 안에 만족하실 수 없겠지만 진전을 갖다보면 빠른 시일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.

노 : 안 제출해달라.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한 내용은 우리도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?

사 : 임금은 각 사마다 지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회사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내긴 어려운 것 같다. 위험성평가는 중앙에서 진전된 건 저희도 할 거다. 휴일은 각 사별로 차이가 많아서 별도로 안을 준비를 못했다. 준비된 안 제출하겠다. **<안 검토를 위한 정회>**

노 : 임금인상안은 2개사밖에 제출 안했는데, 사전에 준비 못했더라도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. 유급휴일은 어린이날이 계속 빠져있다. 특히 '근로일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대체 근로일을 정한다.'라고 한 부분은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히 비판이 많은 내용이다.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위험

성평가 1항은 중앙교섭에서도 수용하기로 한 내용이니 지부도 수용하겠다. 위험성평가 2, 3항은 다음주 중앙교섭 정리되는 걸 보고 안을 더 내실테니 그 때 더 논의하자.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임금인상안인데, 2개사 외에 나머지 회사는 낼 의향이 없나?

사 : 저희도 별도 논의를 했는데 2개사는 냈고 나머지는 추후제시로 했다. 지부에서 가능하면 지회로 내려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이후에 지부교섭에 안을 승인하는 방향이 어떨까 한다. 지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열어주시면 논의해서 지부에 제출하겠다. 사측 입장은 그렇다.

노 : 지회별로 내려주면 지부교섭이 의미가 없다. 지부교섭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. 지부교섭 자리에서 실무교섭을 더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이 교섭석상에서 제시되고 실무가 열려야 한다.

사 : 사용자도 교섭 후 회의할 예정인데, 입장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. 지금 상태에서 지회교섭 시작도 안한 회사도 있고, 일부 진행된 회사도 있다. 명시 못한 건 각 사별로 사정이 있다고 감안해달라.

노 : 분명히 말씀드릴 건 임금안이 제시되어야 지부교섭을 마무리할 단초가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. 유념해달라. 중앙교섭도 전망이 밝다고 했다. 차기 교섭에서 안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. 다음 교섭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자. 임금교섭 7/7일부터 열렸는데, 아직도 '추후 제시'라는 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다.

사 :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간접적 표현이라고 생각해달라. 다음 교섭 전에 내부정리를 해오겠다.

노 : 지부입장에서는 다음주가 마지노선이다. 그 이후로는 코스모링크부터 휴가 시작된다.